

# 책 대신 골라 드립니다

## 이달의 추천도서

어느덧 2022년도 끝자락을 향해 간다. 찬바람이 부는 11월, 따뜻한 방 안에서 좋은 책 한 권 읽으며 사색에 잠겨 보는 것은 어떨까? 고양특례시 사서들이 엄선한 추천도서를 소개한다.



### 비혼이고요 비건입니다

저자 편지지, 전범선 | 출판 봄름  
#아무진\_세미집순이가\_추천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집에서 먹고 생활하는 식구로 지내는 저자 편지지와 전범선. 이들은 비건이며, 비거니즘을 '살림'으로 표현한다. 이들의 글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쉽지 않은 길을 택한 사람들의 먹고 사는 일을 살펴볼 수 있다. 완벽한 비건은 어디에도 없다. '살림'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비혼과 비건뿐만 아니라, 평등으로 귀결되는 세상의 다양한 문제들에 눈길이 가도록 만드는 책이다.

결국 언어의 문제다. 비거니즘, 페미니즘, 에콜로지, 이런 식으로 나누면 각자 다른 개념처럼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당면 과제가 결국 하나라고 확신한다. 전부 평등의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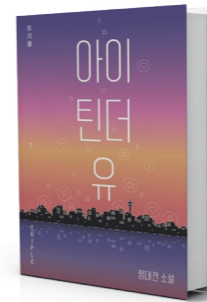


### 눈,물

저자 안녕달 | 출판 창비  
#무채색\_레드벨벳이\_추천합니다

안녕달의 그림책을 좋아한다. 귀엽고 올망졸망한 시선이나 단어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도록 사랑스럽다. 그래서 안녕달의 어른동화는 생소하고 또 신기한 존재였다. 어른동화라는 이름으로 나온 이 책에는 눈아이를 낳은 한 여인으로부터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눈아이를 지키고자 여인이 선택한 여러 가지 길들. 여인과 반짝이는 세상 그리고 작가의 말처럼 잔인하게 자라는 그 초록 들을 우리는 뭐라고 판단할 수 있을까.

겨울밤, 여자는 어쩌다 눈아이를 낳았다.  
유령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림자도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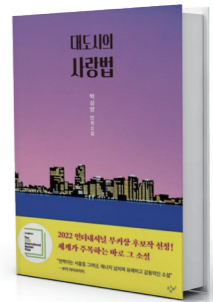


### 아이 틴더 유

저자 정대건 | 출판 자음과모음  
#디카페인\_유자차가\_추천합니다

데이팅 어플에서 사람을 만나면 어떨까 궁금했다. 책은 틴더로 만나 데이트를 하는 순간에도 서로의 핸드폰에 틴더 알림이 울린다. 진지한 만남을 기대했다면 속상하고 질투나겠지만 캐주얼한 만남을 전제로 한 주인공 '호'와 '솔'은 상대의 데이트 경험을 공유하며 우정을 쌓아간다. 이것은 진정한 우정일까? 우정이라고 속이는 사랑일까? 어떤 관계든 공들이지 않는 관계는 금방 흩어지는 것 같다. 그게 틴더로 만났든 그러하지 않든 간에 말이다. 그러니 옆에 있을 때 잘하자.

시간이 흐르면서 호와 나는 석양에  
따뜻한 금빛으로 물들어갔다.  
이 짧은 시간을 촬영에서 매직 아워라고 해.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아. 짧기 때문에 소중한지.



### 대도시의 사랑법

저자 박상영 | 출판 창비  
#휘귀친구\_마라탕이\_추천합니다

청춘의 사랑과 이별의 행로를 때로는 경쾌하게 그려내고, 때로는 밀도 높게 성찰하는 4편의 중단편을 모았다. 30대 초반의 작가 '영'이 좌충우돌하며 삶과 사랑을 배워 나가는 과정이 흥미롭고 깊이 있게 펼쳐진다. 책의 주요 무대는 서울이다. 표제작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나'와 '규호'는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만나게 된다. 화려한 대도시에 주인공이라고 생각했던 두 사람은 난관을 맞이하게 된다. 도시의 공허함을 온전히 느끼면서 그들은 어느 연인들처럼 이별을 받아들인다.

그는 내게 있어서 사랑과 동의어이기도 하다.  
내게 규호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규호의 실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사랑의 존재와  
실체에 대해 증명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GOYANG PUBLIC LIBRARY

## 도서발굴단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특례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주제들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도서발굴단  
바로가기